

## 현대시를 통한 수치(羞恥)의 감정 교육 연구

윤 호 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연구교수

\* 이 논문은 제74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2021.8.21.)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인간적·윤리적 감정으로서의 수치심
- III. 수치심의 교육적 가치와 의의
- IV. 현대시에 재현된 수치심의 특징과 양상
- V. 수치 감정의 교육 과정
- VI. 결론

## I. 서론

외부의 감각과 자극이 팽배한 시대에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특히 성과와 성취를 중시하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감정과 정서에 주목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 소홀하게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이해하며 건전하게 조율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문학교육은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감정 및 정서의 발달과 세련을 지향한다. 문학은 독자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체험하도록 하거나 이미 경험해 본 감정과 정서를 새로운 방식과 관점으로 체험하도록 한다. 문학교육을 통한 감정의 풍요는 독자가 일상의 순간들을 더욱 섬세하고 다채롭게 마주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연과 연, 행과 행 사이에 침묵과 비약이 존재하는 시 텍스트를 해석할 때, 독자는 자기 자신을 텍스트에 더욱 깊숙하게 연루시키고 텍스트에 함축된 감정과 정서를

더욱 내밀하게 느낀다.

문학 작품은 불안, 우울, 권태 등 인간의 어두운 감정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일상에서 불안, 우울, 권태 등은 극복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는 감정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문학 작품 속의 화자나 인물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그 실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계기로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낸다. 현대시 교육에서 특정한 감정, 특히 어두운 감정에 주목한 연구로는 애상(최치현, 1999), 애잔함(구영산, 2003), 불안(고정희, 2010; 윤호경, 2014) 등을 다룬 연구들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상에서는 제거되어야 하는 부정적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교육적으로 다룰 만한 의의를 가진 감정으로 수치심(羞恥心)에 주목한다. 수치심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보기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 절망감을 내포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는 수치심을 무시하거나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수치심은 현재의 상황을 문제시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변화와 성장을 지향하는 동력이 된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의 교육적 가치를 조명하고, 현대시 작품 속에 형상화된 다양한 수치심의 스펙트럼과, 그 교육의 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이로써 문학교육에서 가능한 감정 교육의 한 예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

1) 최인자(2019)에서는 수치심을 성찰적 정서로 규정하고, 현대소설을 기반으로 한 성찰적 정서 리더러시 교육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김승옥 소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치심을 “근경의 상황 속에서도 이상적 자아와의 긴장을 유지하고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도덕적 정서”로 정의하고, “자기다운 삶을 살려는 존재론적 각성”이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았다(최인자, 2019: 183).

## II. 인간적·윤리적 감정으로서의 수치심

감정은 주체에게 스스로의 상태를 단적으로 알려주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기반이 되며, 행동의 동기와 원인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 감정은 주체의 쾌, 만족, 편안함의 여부를 알려주는 표식으로(심은화, 2018: 318), 주체는 이성애 앞서 감정을 통해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과 상태, 가치와 지향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같은 감정을 공유할 때 우리는 타자와 내밀하게 소통한다는 느낌을 받는다.<sup>2)</sup> 또한 감정은 인간이 도덕적 행동과 실천을 하는 이유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는 개념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를 희생하여 타인을 돕는 이타적 행동은 인지와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고, 감정적 이끌림이 뒷받침될 때 그 동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루이스(M. Lewis)는 인간의 감정, 정서, 느낌 등의 관련 개념을 인지와 자의식의 개입 여부에 따라 세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허기, 피로, 고통 등의 신체적 감각, 둘째, 인지가 개입하는 기쁨, 슬픔, 공포, 혐오, 흥미, 분노 등의 일차 감정, 셋째, 자의식을 필요로 하는 공감, 동정, 부러움, 죄책감, 수치심, 자부심, 후회 등의 이차 감정이 그것이다(Lewis, 1995: 13-17). 이차 감정 중에서도 수치심은 죄책감이나 자부심 등의 관련 감정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추적인 감정이다. 죄책감은 수치심을 촉발하는 반면,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치심은 죄책감보다 더욱 근본적인 감정이고(임홍빈, 2013: 375),<sup>3)</sup> 수치심과 자긍심은 사회적 인정의 상실과 회복에 따라 달

2) 레비나스와 블랑쇼의 철학에서 타자와의 소통은 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감수성의 차원에서 타자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미희, 2005: 76).

3) 헬렌 루이스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각각 '자신(self)'에 대한 감정과 '행위(behavior)'에 대한 감정으로 정의하였고, 루이스의 개념화를 지지하는 연구들은 이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Tangney & Dearing, 2002: 18-24). 잘못된 행위로 인한 죄책감은 그러한 행위

라지는 “동전의 양면”(임흥빈, 2013: 373) 같은 감정들이다.

수치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감정으로 논의되어 왔다. 맹자가 제시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마음(四端) 중 하나인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의롭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맹자의 철학에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타고난 근본적 역량”(진은영·김경희, 2017: 305)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역시 수치는 불의에서 비롯한다고 보면서 수치를 “악덕에 대한 고통과 혼란스러움”(Aristotle, 2015: 156-157), “불명예에 대한 일종의 공포”(Aristotle, 1984: 140-141)로 정의하였다. 플라톤(Plato)은 수치심 없이는 개인이나 국가가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았고(Plato, 1901/2010: 68), 니체(F. Nietzsche)는 인간을 “빨간 뺨을 갖고 있는 짐승”(Nietzsche, 1968/2000: 145)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역시 인간이 부끄러움을 잘 느낀다는 특성을 드러낸다.

실제로 수치심은 떳떳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목표에서 미끄러지고,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다가도 좌절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감정이다. 명예의 상실과 회복, 자부심과 좌절감, 양자에 맞물려 있는 양가적인 감정이므로, 반성이나 성찰을 할 줄 모르는 존재나 완전무결한 절대적 존재는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 즉 수치심은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내면의 소리”이자(이찬, 2015: 14) “인간으로서 넘지 않아야 할 경계선에 대한 주의 신호”(심은화, 2018: 325)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수치심에 압도되어 무력해져서도 안 되지만, 수치심을 망각하거나 그에 무감해지는 일 역시 경계해야 한다. 수치심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치부와 한계를 마주하도록 함으로써 주체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수치심은 타인의 고통에 주체를 깊이 연루시킨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

를 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죄책감을 촉발하지는 않는다(임흥빈, 2013: 375).

감정이기도 하다. 니체에 따르면 고결한 존재의 감정은 연민이 아니라 수치이다. 그는 연민을 ‘게으르고 뻔뻔한 감정’으로 보고, 연민하는 자들은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Nietzsche, 1968/2000: 145). 연민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손택(S. Sontag)의 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연민이란 고통의 원인에 자신은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무고함, 고통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능력을 전제하는 감정이라고 본다(Sontag, 2003/2004: 154).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자신에게 고통의 원인과 책임, 그것을 변화시킬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체는 연민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낀다.

반면 수치심을 부정적으로 보는 논의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누스바움(M. Nussbaum)은 수치심을 ‘인간성을 훼손하는 감정’으로 규정한다. 다만 누스바움이 모든 수치심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다. 그는 수치심을 다양한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수치심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나르시시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Nussbaum, 2004/2015: 37-39). 반면 건설적 수치심은 자신이 잘못된 공동체의 규범에 연루되어 있다는 데서 오는 감정으로, 주체가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을 느끼도록 한다. 다만 생산적 수치심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것이 적절하다(Nussbaum, 2004/2015: 385-395).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긍정적 수치심과 부정적 수치심으로 나누고, 주로 긍정적 수치심을 다룬다. 수치심은 반성과 성찰에 의해 자기 내면에서 촉발될 수도, 타인의 조롱이나 보복, 처벌에 의해 외부에서 주어질 수도 있다. 전자는 자율적인 감정으로 죄책감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만, 후자는 타율적인 감정으로 모욕감에 가깝다.<sup>4)</sup> 또한 전자는 주체의 잘못이나 윤리적 결함

4) 신형철(2019: 9)에서는 수치심을 순전한 모욕감에 가까운 것과 죄책감으로부터 촉발되는 것 두 가지로 나눈 바 있다.

과 관련이 있지만 후자는 반드시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의 장에서는 부정적 수치심을 통제하는 한편, 긍정적 수치심을 통해서 학습자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가지고, 공동체에서 생겨나는 크고 작은 비극과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 III. 수치심의 교육적 가치와 의의

감정의 세련과 발전은 학습자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 OECD(2018: 5)에서는 학습자들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환경에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의 메타 인지적 기능이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장치 활용 등의 실용적인 기능뿐 아니라 공감, 자기효능감, 협력 등의 사회적·정서적 기능 역시 포함된다. 또한 학습 개념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개념과 관련된 구성 요소의 목록에는 공감, 감사, 희망, 열린 마음, 존중, 책임감, 자기 인식·자기 조절·자기 통제, 자기효능감, 신뢰 등(OECD, 2018: 17) 감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감정이 뒷받침될 때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역량들이 포함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감정과 정서는 듣기·말하기, 쓰기,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언급된다. 듣기·말하기, 쓰기 영역에서 관련 성취기준은 감정 및 정서를 표현하고 수용하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sup>5)</sup>

---

5) 듣기·말하기 영역의 성취기준으로는 “[2국01-03]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교육부, 2015ㄴ: 11, 이후부터는 인용한 페이지만 기재), “[9국01-02]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41), “[12화작02-02]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표현한다.”(80),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으로는 “[10국03-03]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62), “[12화작03-08]



문학 영역에서는 작품이 정서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는 성취기준과 작품을 공감적으로 수용한다는 성취기준, 이렇게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sup>6)</sup> 이 중 전자는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감정을 다루는 성취기준은 후자 하나이다. 그러나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에서 감정과 정서를 가장 다양하고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인 만큼,<sup>7)</sup>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들, 특히 자주 맞닥뜨리지만 드러내놓기 어려운 감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 학습자가 이를 건강하게 직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감정은 학습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일은 교육에 의해 학습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장에서 수치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에 주목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수치심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여, 삶의 방향을 세우고 목표를 다잡도록 하는 감정이다. 수치심은 주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 스스로의 역량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뒷받침될 때 성립하며,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는 자부심이 훼손된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치심은 “전적으로 자기를 수반하고 타깃으로 삼는 정서”이자 “우리에게 떠맡겨진 자기에 대한 경험”(Zahavi, 2014/2019: 374, 399), “자기존중을 함양하”는 감정(허라금, 2016: 212)이자 “자기반성의 계기”(심은화, 2018: 327)이다.

---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83)가 이에 해당한다.

- 6) “[12문학01-01]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125), “[12문학02-04]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127)가 이에 해당한다.
- 7) 감정 및 정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지만, 언어를 매개로(염창권, 2008: 316) 또 예술 활동을 통해서 어떤 매체 속에서 분명히 말해질 때 소통 가능한 것이 된다(Parsons & Blocker, 1993/1998: 196). 문학 작품은 언어를 매체로 한 예술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서를 다루는 데 있어 최적의 매개이다.

둘째, 수치심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감정이다. 사르트르(J. P. Sartre)는 수치의 성립에 있어 타자의 존재를 강조하여, ‘부끄러움이란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되, “타자에 대해 ‘드러나 있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 일차적으로 “누군가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라고 말한 바 있다(Sartre, 1956/2009: 389-390). 우리는 자신이 타인 앞에서 대상화되고 있음을 느낄 때, 또한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 그 사이의 간극과 격차를 느낄 때,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므로 수치심은 근본적으로 “타자 의식적 감정”(허라금, 2016: 208)이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심적 상태를 드러내 보여준다.

셋째, 수치심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비극에 우리 자신을 연루시키는 감정이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증언으로 잘 알려진 레비(P. Levi)는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닌 타인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에 연루됐다는 생각 때문에 가책과 수치심이라는 고통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수치심은 자신이 엄청난 고통을 만 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인간’이라는 데서 비롯하는 감정이다(Levi, 1986/2014: 101-102). 야스퍼스(K. Jaspers)에 따르면 인간 상호 간에는 연대가 존재하고 세계의 모든 불법과 불의에 대해 인류는 공동의 책임을 진다(Jaspers, 1965/2014: 87).<sup>8)</sup>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인간이 야기한 비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의로운 사람들은”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와 같이 수치의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자기 인식,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여섯 가지 핵심 역량 중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

8) 야스퍼스는 죄의 종류를 범죄, 정치적 죄, 도덕적 죄, 형이상학적 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 중에서 형이상학적 죄는 타인에게 벌어지는 범죄를 막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았다는 죄, 그러한 범죄가 자행되었음에도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죄를 말한다(Jaspers, 1965/2014: 85-87).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춰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교육부, 2015 7: 2)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수치심을 외면하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직면할 때, 학습자는 자기 이해 및 타자와의 관계,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을 기반으로 주체성과 책임감, 윤리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IV. 현대시에 재현된 수치심의 특징과 양상

감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리고 주체의 특성과 기질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고 표현될 수 있다. 수치심 역시 감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가 처한 시대와 맥락,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체험되고 표현된다. 이 장에서는 1930~40년대의 윤동주, 1950~60년대의 김수영, 1980년대의 황지우,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과 시대적 맥락을 지니는 세 시인의 작품을 분석하여, 수치심의 스펙트럼을 도출하고 교육의 장에서 주목해 다룰 만한 수치심의 가치와 의의를 구체화한다. 세 시인 중에서도 윤동주의 작품에서는 수치심의 자기 반성적인 특성을, 김수영의 작품에서는 사회적·관계적인 특성을, 황지우의 작품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으로서의 특성을 집중하여 다룬다.<sup>9)</sup>

- 
- 9) 윤동주, 김수영, 황지우의 작품에서 수치심의 여러 특성 중 한 가지씩을 집중하여 다룰 뿐, 수치심의 세 가지 특성이 세 시인의 작품을 변별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수치심의 세 가지 특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한 시인의 작품만으로 수치심의 세 가지 특성을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윤동주의 자기 성찰적 수치심은 구체적 타자와 보편적 민족 공동체와 상관관계를

## 1. 자기 평가와 성찰의 감정

인간은 스스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실제의 모습 사이에서 차이를 느낄 때, 실망감과 좌절감에 괴로워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끄러움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애정에 의해 가능한 감정이기도 하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실망과 좌절 역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치심의 주체는 자기 비하와 자기 존중, 자기혐오와 자기연민 사이를 오가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수치심이 내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기대, 반성과 성찰은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인 윤동주의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윤동주는 작은 것에도 부끄러워했던 순수한 청년의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의 작품이 지니는 아름다움은 흔히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고, 윤동주 시의 화자는 유독 ‘수치심에 취약하다’(이지원, 2019: 322)는 평가를 받는다. 윤동주의 시에서 부끄러움은 시적 화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이면서도 시인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지향하도록 만드는 동력이 된다.

특히 윤동주의 시에서 시적 화자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하늘’이다. 하늘은 시적 화자의 성찰과 결단을 촉구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

지니고, 김수영의 타자 의식적 수치심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황지우의 연대의식으로서의 수치심은 구체적 타자들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비롯한다. 또한 수치심이란 근본적으로 자기반성과 평가를 수반하므로, 타자 의식적 수치심과 연대의식으로서의 수치심 역시 자기 평가와 반성, 성찰을 경유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세 시인의 작품이 수치심의 각 특성을 부각시켜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 작품을 분석한다.

- 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序詩〉 부분)<sup>10)</sup>
- ②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길〉 부분)
- ③ 다시 그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사나이가 그리  
워집니다.// 우물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  
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自畫像〉 부분)
- ④ 한번도 손들어 보지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몸들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무서운時間〉 부분)
- ⑤ 어둔 房은 宇宙로 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또다른故  
鄉〉 부분)

‘하늘’로 표상되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는 항상 그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토로해야 했다. 특히 〈序詩〉에는 첫 구  
절에 『맹자』의 한 구절(‘앙불괴어천(仰不愧於天)’)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진은영·김경희, 2017: 311),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외에도 윤동주의 시에서 하늘은 시적 화자가 삶을  
성찰하도록 하는 매개로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시적 화  
자는 ‘하늘이 부끄럽게 푸르다’고 말하고(②), 자기혐오와 자기연민을 오가던  
시적 화자가 들여다 본 ‘우물’에는 ‘하늘’이 펼쳐져 있으며(③), 하늘은 시적  
화자의 지향이나 그것을 함축한 세계를 의미하기도(④),<sup>11)</sup> 계시나 메시지의  
발원지로 등장하기도 한다(⑤).

윤동주에게 ‘하늘’은 유년 시절부터 받았던 유교적·기독교적 가르침  
이 내재된 양심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그 하늘 앞에서 “한점 부끄럼이 없기

10) 인용되는 윤동주의 시들은 『정본(定本) 윤동주 전집 원전 연구』(2004)를 참조했다.

11)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몇몇한 삶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것, 손들어  
표할 하늘이 없었다는 것은 그러한 노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계를 가져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늘’이란 시적 화자가 자신의 지향을 펼칠 수 있는 세계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를” 염원했기에 역설적으로 한 순간도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수치심의 순간,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골몰하면서도 부끄러운 스스로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하지만, 수치심은 주체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절감하게 하는 감정이다(Levinas, 1982/2009: 53). 윤동주의 작품에서도 시적 화자는 스스로를 미워하면서도 가여워 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고 싶어 하면서도 다시금 돌아와 거울 앞에 선다(③). 이와 같은 상반된 마음의 갈래는 주체를 ‘관찰하는 자아’와 ‘관찰되는 자아’로 나누고(Simmel, 2005: 233), 윤동주의 시에서도 부끄러움은 자아를 두셋 또는 여럿으로 분열시킨다.<sup>12)</sup>

윤동주의 수치심, 그로 인한 반성과 성찰은 내면에서의 골몰에서 비롯할 뿐 아니라 타인, 나아가 민족과 역사의 현실에 대한 고민에서도 비롯한다.

- ① 두툼한 지갑, 時計, 손수건………… 있을것은 죄다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勇氣는 없었다. (〈츠르케네프의언덕〉 부분)
- ② 슬퍼 하는자는복이있나니// 저히가 永遠히 슬플것이요. (〈八福〉 부분)
- ③ 時代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불어〉 부분)
- ④ 나는 무엇인지 그러워/ 이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우에/ 내 일흔자를 썬보고/  
흠으로 덥혀 버리엿습니다.// 따는밤을 새워 우는 버레는/ 부끄러운 일흔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우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일흔자 묻힌 언덕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  
할게외다. (〈별헤는밤〉 부분)

가난한 소년들에게 가진 것을 내주고 싶어 하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해 머뭇거리고(①), 암울한 시대 현실에 영원히 슬퍼해야 할 운명을 절감하는 모습(②)에서 타인의 고통 또는 민족의 현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인

12) 〈自畫像〉, 〈또다른故郷〉, 〈길〉, 〈懺悔錄〉, 〈흰그림자〉, 〈쉽게써워진詩〉 등의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時代를 슬퍼한 일도 없”음을 부끄러워 하지 만(③), 이와 같은 고백은 시대 현실에 누구보다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 슬픔에조차 엄격한 평가와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한편 ‘내 이름자 문헌 언덕’ 위에 풀이 무성할 것임을 예언하는 작품에서는(④) 시적 화자가 역사적 사명의 성취를 삶의 중요한 지향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그가 문헌 ‘무덤’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물리적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별헤는밤>의 시적 화자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다가도 자궁심을 되찾는 태도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는 수치심을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미래의 지향을 다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작품들에서 수치심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지향을 확립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① 처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포기 없는 이길을 걷는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겨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것을 찾는 까  
닭입니다. (<길> 부분)
- ② 人生은 살기어렵다는데/ 詩가 이렇게 쉽게 씨워지는것은/ 부끄러운 일이  
다.// (중략)//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慰安으로잡는 最初의  
握手. (<쉽게씨워진詩>)
- ③ 鐘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횡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왔든 사나  
이, / 幸福한 예수·그리스도에게/ 처럼/ 十字家가 許諾된다면 (<十字家> 부분)

작품의 시적 화자는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부끄러움을(①), 현실과 유리된 자신의 시작(詩作)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백한다(②). ③에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표지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횡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렸다’는 표현은 삶의 지향을 뚜렷하게 확립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조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시적 화자들이 잃어버

린 자아를 찾는 여정을 지속하거나①) 스스로에게 악수를 청하는 일이②)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주체들이기 때문, 즉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의 지향을 모색할 수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인류를 위해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고 싶은 마음에 대한 천명③)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운동주의 작품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믿음, 엄격한 평가와 성찰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는 수치심의 기제를 잘 보여준다.

## 2. 사회적·관계적·타자 의식적 감정

수치는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지만, 타자의 존재 없이는 형성되지 않는 사회적인 감정이기도 하다.<sup>13)</sup> 우리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 특히 자신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있음을 알았을 때, 더욱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혼자 있을 때는 부끄럽지 않거나 부끄러움을 인지하지 못하다가도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서 돌연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한다.<sup>14)</sup>

13) 운동주의 경우는 내면의 양심이 타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4) 어떤 야비한 행동을 했을 때, 혼자일 때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다가도, 타인이 보고 있었음을 알았을 때 주체는 자신이 한 행동의 야비함을 온전히 실감한다(Sartre, 1956/2009: 390).

사르트르의 수치심은 타인에 의해 촉발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서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상태”로, 타자의 시선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체험인 동시에 ‘나’를 타자에게 열어놓는 계기가 된다. 이때 수치심은 주체가 내적으로는 높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고, 외적으로는 타자를 향해 열리는 자유로움을 성취하도록 한다(이선, 2009: 283-295).

김지너(2011)는 사르트르와 김수영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사르트르 철학의 개념을 중심으로 김수영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김지너(2011)에서는 수치심을 수동적 주체의 본질로 보고, 수동적 주체가 타자의 ‘시선’과의 투쟁을 통해 자유와 능동성을 회복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사르트르의 수치심 논의를 참조하여 김수영 시를 살펴 보되, 타자의 시선에 대한 의식과 그로 인한 수치심이 일으키는 긍정적 변화에 주목한다.



이처럼 타자의 현전(現前)은 주체가 수치심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김수영의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하루에 한 번씩은 수치의 순간을 맞다고 말한다(〈陶醉의 彼岸〉).<sup>15)</sup> 시인은 남과 같은 일상을 누리는 것에도 시를 배반하는 부끄러움을 느꼈기에(〈구름의 파수병〉) 그의 삶에서 수치심은 일상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김수영의 작품 중에는 타자 앞에서 느끼는 수치심 또는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촉발되는 수치심을 다룬 작품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김수영 시에 등장하는 타자들은 시적 화자가 그 시선을 의식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하고, 사회의 불의와 부당함에 분노를 표출하게 하기도 한다.<sup>16)</sup>

다음 세 작품의 시적 화자들은 다양한 대상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① 누가 무엇이라 하든 나의 빛은 이 時代를 眞摯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恥辱// 물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곳에/ 나란히 옆으로 가로세로 위로 아래로 놓여있는 무수한 꽃송이와 그 그림자/ 그것을 그리려고 하는 나의 빛은 말할수없이 깊은 恥辱// (중략) // 꽃 꽃 꽃/ 부끄러움을 모르는 꽃들/ 누구의것도 아닌 꽃들/ 너는 니가 먹고 사는 물의것도 아니며/ 나의것도 아니고 누구의것도 아니기에 / 지금 마음놓고 고즈너기 날개를 펴라/ (중략) // 죽음 우에 죽음 우에 죽음을 거듭하리/ 九羅重花 (〈九羅重花—어느 소녀에게 물어보니 너의 이름은 글라지오라스라고〉 부분)

15) 인용되는 김수영의 시들은 『김수영 전집 1-시』(1981)를 참조했다.

16) 김수영의 시에는 다양한 타자가 등장한다. 그의 시에서 타자는 외세나 권력자 같은 멀고도 추상적인 존재에서부터 아내, 아들, 친구, 누이, 식모 등 가깝고 친근한 존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타자 중에서도 권력자(〈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셋개로 하자〉), 외세(〈가다오 나가다오〉) 등 일방적 비판의 대상으로서의 타자보다는 시적 화자의 부끄러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타자를 집중하여 다룬다.

- ②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情緒로/ 가로놓여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第十四野戰病院에 있을 때/ 정보원  
 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  
 스들 앞에서// (중략) //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있다 絶頂 위에는 서있지/ 앉  
 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있는 것이 조  
 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부분)
- ③ 그러나 우산대로/ 여편네를 때려눕혔을 때/ 우리들의 옆에서는/ 어린놈이  
 울었고/ 비오는 거리에는/ 四十명가량의 醉客들이/ 모여들었고/ 집에 돌아  
 와서/ 제일 마음에 꺼리는 것이/ 아는 사람이/ 이 캄캄한 犯行의 現場을/ 보  
 았는가 하는 일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아까운 것이/ 지우산을 現場  
 에 버리고 온 일이었다 (〈罪와 罰〉 부분)

①의 시적 화자는 ‘이 시대를 진지하게 걸어가는 사람’ 앞에서 느끼는  
 치욕을 고백한다. 시적 화자가 치욕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꽃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 꽃은 거듭되는 죽음  
 을 통해 기존의 규칙과 질서를 전복하고, 누군가의 소유가 되지도, 생활에 속  
 박되지도 않으면서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로 묘사된다. 시적 화자는 글로써  
 꽃을 그려냄으로써 꽃이 내포하는 정신과 가치를 지향하고 삶에서 비롯하는  
 치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②의 시적 화자는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당시에 정보원에게 놀림을  
 받으면서 느꼈던 부끄러움에 대해 말한다. 그가 느낀 수치심은 주체의 잘못  
 이나 책임에서 비롯하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에게 받은 조롱에서 비롯하는  
 모욕감, 즉 부정적 수치심이다. 다만 이 작품에서 모욕감은 그것 자체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비겁한 삶, 즉 중심을 돌파하  
 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삶에 대한 부끄러움, 즉 긍정적 수치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내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난 후, 이를 아는 사람이 보았을까봐 불안해 하는 모습에서는(③) ‘나’를 둘러싼 관계망 안에서 더욱 활성화되는(허라금, 2016: 209) 수치심의 특성이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을 목격했지만, 시적 화자가 걱정하는 것은 익명의 군중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이를 보았는지의 여부, 그로 인한 사회적 평판의 훼손 여부이다. 시적 화자는 이보다 마음이 쓰이는 것은 지우산을 버리고 온 일이라고 말해 뻔뻔함을 드러내지만, 이와 같은 일을 작품으로 써서 지면에 발표한 데서 자신의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음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타자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분노는 일방적으로 타자를 향하지 않고, 분노의 방향과 정당성에 대한 회의(懷疑)를 통해 그 스스로에 대한 자조로 이어진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王宮 대신에 王宮의 음탕 대신에/ 五十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越南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二十원을 받으러 세번씩 네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중략) //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二十원 때문에 十원 때문에 一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一원 때문에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부분)

시적 화자는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분노하지 못하고 연약한 민중에게 소심한 화풀이를 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낸다. 전자는 권력의 횡포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통한 자유와 정의의 획득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순간의 언짢음을 이기지 못한 웅졸함에 불과하고, 전자는 온 존재를 건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후자는 어떠한 용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당함의 여부와 정도, 주체와 대상 사이의 권력 관계에 따라서 주체의 분노는 불의에 대한 저항이 될 수도, 단순한 화풀이나 신경질이 될 수도 있다.<sup>17)</sup> 이처럼 김수영의 작품은 타자의 존재를 의식함으로써 촉진되는 부끄러움과, 타자와의 관계망 안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수치심의 사회적·관계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 3. 상호 연대와 공동 책임의 감정

공동체의 비극과 타인의 고통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자각, 이로 인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타인이 처한 비극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는 문제를 대상화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사회에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주체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에서 발생한 비극은 공론화되기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고통을 야기한 부당함과 불합리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전쟁과 분단, 어두운 정치 현실로 인한 비극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타인이 겪는 고통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데, 특히 한국의 1980년대는 수치심이 집단 감정으로 자리 잡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당대의 문인들은 비극의 현장에 있지 못했다거나 비극에서 살아남았다는, 또는 이에 무지했다는 데서 오는 수

---

17)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은 구분이 언제나 선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상에서 수오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타자는 사나운 악한이 아니라, 평범한 양민, 민주주의자, 회사원의 모습을 하고 있다(〈하…… 그림자가 없다〉). 또한 적은 악착빠르고 표리부동하면서도, 자신의 부하와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존재들이라, 그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주변에는 크고 작은 적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적의 숫자를 세려고 보면 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敵〉). 적은 때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敵(二)〉),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적이 시적 화자 내면에 도사리고 있기도 한다(〈死靈〉).

치심을 작품으로 표현해 왔다. 그 중에서도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1983)는 이산(離散), 5·18, 독재 등과 같은 한국사의 비극을 우회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sup>18)</sup>

다음 작품의 시적 화자들은 당면한 시대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모르는 이들을 비판하고 질타한다.

- ① 죄의식에 젖어 있는 시대, 혹은 죄의식도 없는 저 뻔뻔스러운 칼라 텔레비전  
과 저 돈벌벽인 프로 야구와 저 피벌벽인 프로 권투와 저 땀벌벽인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와 그리고 그때마다의 화환과 카퍼레이드 앞에, (<도  
대체 시란 무엇인가><sup>19)</sup> 부분)
- ② 지금 신문에 있어나/ 지금도 대학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  
들이다/ 잘 들어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잘 먹음과 잘  
삶이 다 혐의점이다/ 그렇다고 자학적으로 죄송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발  
좀 그래라) (<같은 緯度 위에서> 부분)

①의 시적 화자는 당대를 “죄의식에 젖어 있는 시대”인 동시에 “죄의식도 없는 뻔뻔스러운” 시대로 진단하는데, 이때 ‘칼라 텔레비전, 야구, 권투, 농구, 화환, 카 퍼레이드’는 시대가 처한 비극에 무감한 오락과 쾌락을 대변한다. ②의 시적 화자는 1980년대 한국이라는 시공간에서 기득권을 대변하면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이들을 향해 ‘제발 좀 죄송한 줄 알라’는 일침을 가

18) 시인은 당대를 “처형받은 세월”, “혼수 상태의 세월”(<대답 없는 날들을 위하여 2>), “사람이란 걸 그만”두어야 하는 시대로(<자물쇠 속의 긴 낭하>) 인식하고, “우리가 우리의 동시대와 맺어진 것은 악연”(<도대체 시란 무엇인가>)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서 가라”, “벗어나거라”(<만수산 드령췌 2>) 등의 주문과는 달리, 이 세계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곳”(김현, 1983: 127-128)으로 표현되고, 시적 화자는 자유로운 새들처럼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자조한다(<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9) 인용되는 황지우의 시들은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1983)를 참조했다.

한다.<sup>20)</sup> 이처럼 두 작품의 시적 화자들은 어두운 시대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모르는 이들을 향한 비판과 질타를 표현한다.

반대로 다음 작품들에는 시대의 비극에 책임감을 느끼고, 고통과 고난을 자처하는 존재들이 등장한다.

- ① 그것을, 申교수는 ‘아침의 세리모니’라고 불렀다, 그는 하이델베르크 박사다, 목숨 걸고 박사파운 그에게는, 상황 자체가, 모독일 수 있으리라, (중략) 그는 어떤 깊은 수치심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중략)/ 崔교수는 스스로도, 부끄러운 세대라고 말하는 50대다, 6·25 당시 전쟁을 피해, 부산서 부두 노동을 하면서 공부한, 도덕보다 목숨이 앞섰던 死活的 상황을 무사히 통과한, 스스로도 부끄러운 세대라고 말하는, 그에게는, 그래서 어딘가 입지전적인 데가 있다, <<파 리 페> 부분)
- ② 마른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는 순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西風 앞에서> 전문)

①에 등장하는 ‘신 교수’와 ‘최 교수’는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지식인으로서 시대적 상황에 수치심을 느끼는 인물들이다. 신 교수는 한때 ‘목숨을 걸었던’ 가치가 배반되는 사회를 ‘모독’으로 느끼고, 최 교수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먹고살기에 급급했던 자기 세대를 부끄럽게 여긴다. ②의 은사시나무는 은빛 껍질을 가진 나무로, ‘사시나무 떨 듯한다’는 관용구에서 알 수 있듯 약한 바람에도 그 가치가 매우 심하게 흔들린다. 은빛 외양과 예민한 기질은 불의에 눈 감지 못해 고통 받기를 자처하는 고결한 “순교자” 같

---

20) 다만 황지우 작품 속의 화자 역시 이와 같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망국’의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야유회 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채했습니다 우리는 不眠의 잠을 잤습니다”(〈만수산 드령침 1〉) 등의 구절, 생존을 위해 자신의 눈과 귀, 입을 막아 버렸다는(〈그날그날의 현장 검중〉) 구절 등은 시적 화자가 비극에 무지했거나 침묵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 ①에 등장하는 신 교수와 최 교수는 옥(獄)에 갇힌 죄수들로, 불의에 눈 감기보다 고통 받기를 선택한 “은사시나무” 같은 사람들이다.

이처럼 황지우의 시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태를 비판하거나 시대 현실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존재들을 조명한다. 이와 같은 시대 인식의 근간에는 비극에 희생되고 상처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부채의식이 존재한다.

① 퇴계로에 와서도 그 山이 보인다. 3·1로까지 걸어가는데, 봄바람 맞으며 가는데, 산은 흔들리는 자기 그림자를 발목까지 담그고 자꾸 땀가 게워낸다. 흙덩어리인 자기를 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녀를 무등 태운 山 그림자가 시내까지 따라온다. 죽겠다! 좀 봐줘. 그래도 온다. (〈에서·묘지·안개꽃·5월·시의버스·하얀〉 부분)

② 그러나 그대들은 내가 당한 상처에 만세할 테예요? 기념 촬영하는가요? 쇼 쇼쇼입니까?/ (중략) / 한시택시 모는 남편도 몰라요 아이들도/ 상처는 상속되지 않나봐요/ 무책임한 시대에는요 (〈남동생 찾습니다 한원택 43세 1·4 후퇴시 함북 청진에서 월남 대구에서 헤어짐 머리에 흉토 있음 누나 한순옥〉 부분)

비극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모습은 끈질긴 환각처럼 등장해 시적 화자를 고통스럽게 하고(②), 시인은 살아남은 이들의 목소리를 빌려 해소되지 못한 채 끓아가는 상처에 대해 말한다(②). ①의 시적 화자는 서울의 퇴계로에서 광주 무등산의 환영을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희생된 만삭의 여인과 만난다. ②에 등장하는 “한순옥” 씨는 1·4 후퇴 때 헤어진 남동생을 찾고 있다. 이산(離散)의 아픔은 사회적 상황이 초래한 비극이지만, 사회는 그 상처를 오락으로 소비할 뿐 상처를 책임져 주지도, 그에 공감해 주지도 않는다. 시적 화자가 서울에서도 광주를, 그리고 죽은 여인을 보는 것, 시인이 이산가족의 목소리로 해소되지 못한 아픔에 대해 말하는 것, 그 저변에는 시대의 비극에 상처 받은 이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연대의식은 국경을 뛰어넘어 타인의 고통과 비극에 주목하도록 한다. 황지우 시의 화자들은 “바르샤바, 그다니스크, 크라코프, 포즈난” 등 폴란드의 도시들에 연대감을 느끼고(〈같은 緯度 위에서〉), 지구 정반대편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 앞바다에 떠 있는 혈흔과(〈몬테비데오 1980년 겨울〉)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들리는 통곡과 절규에 주목한다(〈베이루트여, 베이루트여〉). 시집 곳곳에서 시적 화자들은 희생된 이들과 상처 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이 땅을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고통과 비극에 독자들이 주목하도록 만든다.

## V. 수치의 감정 교육의 과정

문학교육에서는 작품에 재현된 감정뿐 아니라 독자가 작품의 감정을 느끼고 체험하는 과정과 양상을 탐구해 왔으며, 이는 대개 ‘정서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 제시된 정서 체험은 대체로 작품에 형상화된 정서를 이해·분석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연계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sup>21)</sup> 본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가 수치심을 학습하는 과정을 ‘공감과 동일시를 통한 수치심의 체험’, ‘회상과 상상을 통한 수치심의 자

---

21) 염창권·조은주(2002)에서는 학생 반응을 자아를 중심으로 내향적 반응과 외향적 반응으로 나누었는데, 내향적 반응은 정서적 취향과 자기 경험에 근거하는 구심적 독서로, 몰입, 감정이입(공감), 연계를 이루어진다. 김선희(2007)에서는 시조에 대한 학습자의 정서 반응이 정서의 환기·구체화·체험화·내면화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박수현(2014)에서는 현대시의 정서 체험이 ‘텍스트 내 의미 자질의 감응을 통한 시 텍스트 정서 실현, 정서의 순간적 회감과 독자 지평의 개입, 중첩되는 정서 체험의 연쇄를 통한 심화, 정서 체험의 언어화 과정에서의 변이’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최인자(2019)에서 제시한 정서 리터러시 교육의 성찰적 모델은 학습자가 소설 속 인물의 정서를 분석한 후,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다시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기화', '자각과 관심을 통한 수치심의 실천'이라는 순서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독자는 작품 속의 시적 화자가 느낀 수치심과, 이를 통한 반성과 성찰, 변화와 성장을 자신의 삶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1. 공감과 동일시를 통한 수치심의 체험

작품은 시적 화자 또는 시인이라는 타자의 내밀한 체험을 다룬다. 작품에 형상화된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느꼈던 감정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독자는 시적 화자와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러면서도 시적 화자에 최대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통해 작품의 고유한 감정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공감(empathy)과 동일시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sup>22)</sup>

공감과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서 독자는 작품에 형상화된 수치심을 체험한다. 학습자에게 수치심은 피해야 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졌을 수 있지만, 작품 속의 수치심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수치심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낮추고 그 역할과 중요성,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윤동주, 김수영, 황지우 등 수치심을 형상화한 여러 주체의 작품을 접하도록 하거나 한 편의 작품을 통해서라도 수치심의 양상을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수치심을 보다 입체적으로 체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작품의 수치심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

22) 공감은 이질성을 전제하는 개념으로, 익숙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문선영, 2020: 36). 동정(sympathy)이 이미 갈아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면, 공감은 동정이라는 상태를 지향하는 '실천'을 말한다(신형철, 2015: 5-6).

독자는 작품을 통해 익숙한 감정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낯설고 새로운 감정을 만나기도 한다.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감정의 시뮬레이션 실험"(신형철, 2014: 230)이라면, 공감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체가 자기 세계의 동일성을 깨고 나아가 타자의 이질적인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는 동력이 된다. 이때 공감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이질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관점에서 그 감정을 느끼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인간의 고유한 감정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맥락 및 시인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윤동주의 작품에서는 그가 부끄러움에 민감한 시인이었음을, 김수영의 작품에서는 그가 타자의 시선을 예민하게 의식했다는 것을, 황지우의 작품에서는 수치심을 야기한 특수한 시대적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각 작품에서의 수치심을 실존했던 한 개인의 구체적인 감정으로서 예민하고 섬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 회상과 상상을 통한 수치심의 자기화

독자는 작품에 형상화된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인식하는 데서 나아가 타인의 감정을 자기화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통을 묘사하는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독자는 미약하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을 환기하면서 인물이 겪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낀다(김성룡, 2010: 25). 마찬가지로 작품 속의 인물이 기쁨, 슬픔, 분노를 느낄 때, 그와 같은 감정을 느껴본 독자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환기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감정을 떠올리거나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적 화자의 감정에 접근할 수 있다.<sup>23)</sup>

수치심을 다룬 작품을 읽는 경험은 독자로 하여금 저마다 수치심을 느

23) 유영희(2007)에서는 정서 체험을 세 단계로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독자가 작품을 읽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체험을 이끌어낸 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세밀하게 읽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구영산(2001)에서는 독자의 상상 작용이 주로 자신의 기존 체험을 결부시켜 진행되되, 화자의 체험과 관련된 체험이 없는 독자들의 경우에는 허구적 세계에 대한 상상을 통해 화자의 체험을 재현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독자는 저마다 다른 삶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회상과 상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작품에 재현된 감정의 구현은 독자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같은 작품을 읽더라도 독자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즉 독자는 시적 화자가 느낀 감정 또는 저자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및 기억을 매개함으로써 감정을 각자의 방식으로 개별화하여 받아들인다.

졌던 순간을 환기하도록 한다. 어떤 학습자는 과거에 수치심을 통해서 반성과 성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을 수 있고, 또 다른 학습자는 수치심에서 서둘러 벗어나거나 이를 애써 무시하려고 했을 수 있다. 작품의 수치심을 자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자는 수치심을 계기로 한 변화와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고, 후자는 더 이상 수치심에서 도피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극복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지 못하는 학습자는 작품 속의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수치심을 매개한 변화와 성장에 다가설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독자는 시적 화자의 수치심을 자신의 방식으로 익숙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인다. 다만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거나 작품 속의 수치심을 상상하도록 할 때, 부정적 수치심이 아니라 긍정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에 의해 주어지는 부정적 수치심은 학습자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에 대한 죄책감, 자신이 연루된 일에 대한 책임감, 반성과 성찰의 감정으로서의 수치심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 3. 자각과 관심을 통한 수치심의 실천

작품을 통한 감정 교육은 학습자가 감정의 풍요를 통해 일상을 윤택하게 누리도록, 감정의 적절한 직면을 통해 일상을 건강하게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즉 작품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학습하는 일은 독자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치의 감정 교육 역시 독자가 시인의 수치심에 공감하고 이를 자기화하여 받아들이는 데서 더 나아가<sup>24)</sup>

24) 작품의 수치심을 시인의 고유한 감정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면 이를 '민족시인'이나 '저항시인'의 특수한 감정으로 대상화할 수 있고, 수치심을 자기화하는 데 그치면 학습자의 삶

작품을 통해서 느낀 바를 삶에서 실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불의와 부정, 부당 앞에서 우리는 빈번하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타자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고, 타자의 비극을 목도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고통 앞에서 구성원들은 빈번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말로써 수치심을 표현하고, 고통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는 말로써 수치심을 촉구한다.

수치심은 고통과 비극이 있을 때 발현되는 감정이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자각으로, 변화의 시작이자 행동의 동기로서의 실천력을 갖는다. 또한 수치심은 주체에게 상황에 책임이 있음을 드러내면서도, 주체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국 수치심의 자각은 자기 자신과 타인,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와 대상에게 벌어진 불의와 부정, 고통과 비극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하는 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교교육이 학습자의 실천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정은 행위의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라는 점에서 문학 작품을 통한 수치의 감정 교육은 능동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심리적 자원을 마련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다만 수치심은 외부에서 타인이 강제로 부여할 때 주체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모욕감, 즉 부정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타인의 감정을 매개로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는 문학 감상은 학교교육에서 수치심을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에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울림을 넘어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 VI. 결론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의 간헐적 중단은 비단 학업의 중단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학업을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 발달의 문제, 사회·심리적 발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동료 학습자 및 교사들과의 상호 작용 및 감정적 교류의 활성화를 고민함과 동시에 학습자들이 온전히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직면하고 그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교육적 감정으로 규정하고, 수치심의 개인적·관계적·공동체적 측면에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수치심에 직면하는 일은 스스로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주체를 자기 자신 앞에 세워 본래의 역량과 책임을 상기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는 고통과 대면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갖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윤동주, 김수영, 황지우의 작품을 중심으로 교육의 장에서 주목해 다룰 수 있는 수치의 가치와 의의를 구체화하였다. 세 시인의 작품은 각각 수치심의 자기 성찰과 반성적 성격, 관계적·사회적 특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으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보았다. 또한 수치의 감정 교육의 과정으로는 ‘공감과 동일시를 통한 수치심의 체험’, ‘회상과 상상을 통한 수치심의 자기화’, ‘자각과 관심을 통한 수치심의 실천’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학습자들은 외부의 감각과 자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다매체 환경에 걸맞은 양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내면에 침잠하여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고, 이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문학 감상은 주체가 스스로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고립시켜 내면에 집중하도록 한다. 문학교육은 문학 감상의 과정을 경유하는 만큼 학습자가 스스로의 감정

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21.10.31. 투고되었으며, 2021.11.13. 심사가 시작되어 2021.12.0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1. 자료

교육부(2015ㄱ),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교육부(2015ㄴ),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김수영(1981), 『김수영 전집 1-시』, 서울: 민음사.

홍장학(2004), 『정본(定本) 윤동주 전집 원전 연구』, 서울: 문학과지성사.

황지우(1983),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서울: 문학과지성사.

### 2. 논저

고정희(2010), 「시의 정서(emotion)과 기분(Stimmung)에 대한 연구-마중기의 〈낚시질〉과 〈중년의 안개〉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14, 239-271.

구영산(2001), 「시 감상에서 독자의 상상 작용 연구-정서 체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영산(2003), 「시 감상에서 “슬픔”에 대한 태도교육의 내용 연구-“애잔함”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9, 33-58.

김선희(2007), 「문학적 정서 함양을 위한 시조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룡(2010), 「정서(情緒)와 문학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20, 5-32.

김지너(2011),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타자의 “시선”과 “자유”의 의미-사르트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4, 121-150.

김현(1983), 「타오르는 불의 푸르름」,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서울: 문학과지성사, 123-134.

문선영(2020), 「가치 평가적 사유로서의 공감을 위한 현대시교육 방향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5(1), 31-68.

박수현(2014), 「시 텍스트 정서 체험 교육 연구-학습독자의 정서 체험 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형철(2014), 「책을 읽으며」, 김애란·김행숙·김연수·박민규·진은영·황정은·배명훈·황중연·김홍중·전규찬·김서영·홍철기(편), 『눈먼 자들의 국가』, 파주: 문학동네.

신형철(2015), 「감정의 윤리학을 위한 서설 1-주제와 대상에 대한 개요 및 단상들」, 『문학동네』 22(1), 1-15.

신형철(2019), 「정치적 수치심의 발명-감정의 윤리학을 위한 서설 2」, 『문학동네』 26(3), 1-26.

심은화(2018), 「수치심과 인간다움의 이해-누스바움과 맹자의 수치심 개념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88, 317-335.

염창권·조은주(2002), 「학습일지(Learning Logs)에 나타난 6학년 학생들의 문학 반응 양상」, 『새국어교육』 64, 93-118.

염창권(2008), 「미적 정서의 특성과 문학교육적 함의」, 『한국초등국어교육』 36, 301-333.

- 유영희(2007), 「현대시의 정서 표현과 정서 체험 연구」, 『우리말글』 39, 139-166.
- 윤호경(2014), 「불안의 기분에 기반한 현대시 교육 연구-윤동주 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2009), 「부끄러움의 도덕적 기능」, 『철학논총』 55, 282-287.
- 이지원(2019), 「누스바움의 감정철학으로 본 윤동주의 '시적 정의(正義)」, 『어문학』 143, 317-347.
- 이찬(2015), 「수치심과 용기-유가의 전통에서 인간다운 삶의 의미에 관하여」, 『철학연구』 51, 1-29.
- 임미희(2005), 「엠킨누엘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예술과 타자성의 의미」,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홍빈(2013), 『수치심과 죄책감』, 서울: 바다출판사.
- 진은영·김경희(2017), 「유교적 수치심의 관점에서 본 윤동주의 시 세계」, 『한국시학연구』 52, 299-326.
- 최인자(2019), 「현대소설 기반의 성찰적 정서 리터러시 교육-수치심의 정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5, 167-193.
- 최지현(1999), 「이른바 애상은 어떻게 거부되는가-슬픔의 정서에 대한 '교육적 고려'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문학교육학』 3, 261-282.
- 허라금(2016), 「수치의 윤리, 그 실천적 함의」, 『한국여성철학』 26, 205-229.
- Aristotle(1984),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역), 서울: 서광사.
- Aristotle(2015), 『수사학』, 이종오(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Jaspers, K. (2014),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 이재승(역), 서울: 엘피(원서출판 1965).
- Levi, P. (2014),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소영(역), 파주: 돌베개(원서출판 1986).
- Levinas, E. (2009), 『탈출에 관해서』, 김동규(역), 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원서출판 1982).
- Lewis, M. (1995),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NY: Free Press.
- Nietzsche, F. (2000),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역), 서울: 책세상(원서출판 1968).
- Nussbaum, M. (2015),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조계원(역), 서울: 민음사(원서출판 2004).
-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aris: OECD Publishing.
- Parsons, M. & Blocker, H. G. (1998), 『미학과 예술교육』, 김광명(역), 서울: 현대미술사(원서출판 1993).
- Plato(2010), 『향연』, 강철웅(역), 서울: 이제이북스(원서출판 1901).
- Sartre, J. P. (2009), 『존재와 무』, (제2판), 정소성(역), 서울: 동서문화사(원서출판 1956).
- Simmel, G. (2005), 『집현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역), 서울: 새물결출판사.
- Sontag, S. (2004), 『타인의 고통』, 이재원(역), 서울: 이후(원서출판 2003).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NY: Guilford Press.
- Zahavi, D. (2019), 『자기와 타자』, 강병화(역), 파주: 글항아리(원서출판 2014).

## 현대시를 통한 수치(羞恥)의 감정 교육 연구

윤호경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이해하며 건전하게 조율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학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감정 중에서도 수치심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여 현대시 작품에 형상화된 수치심의 스펙트럼과 교육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수치심은 떳떳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끊임없이 목표에서 미끄러지는 불완전한 인간의 감정이자 타인의 고통에 스스로를 깊이 연루시키는 윤리적인 감정이다. 수치심은 첫째,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여 삶의 목표를 다잡도록 하는 감정, 둘째,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감정, 셋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비극에 우리 자신을 연루시키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수치심의 세 가지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윤동주, 김수영, 황지우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세 시인 중에서도 윤동주의 작품에서는 수치심의 자기 반성적인 특성을, 김수영의 작품에서는 사회적·관계적인 특성을, 황지우의 작품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으로서의 특성을 집중하여 다루었다. 또한 수치의 감정 교육의 과정으로는 ‘공감과 동일시를 통한 수치심의 체험’, ‘회상과 상상을 통한 수치심의 자기화’, ‘자각과 관심을 통한 수치심의 실천’을 제안하였다.

문학 감상은 주체가 스스로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고립시켜 내면에 집중하도록 한다. 문학교육은 문학 감상의 과정을 경유하는 만큼

학습자가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문학교육, 현대시 교육, 감정, 수치심, 감정 교육, 정서 체험

## A Study on the Education of Shame through Poetry

Yun Hogyong

In order for learners to grow into adults who can take care of, understand, and coordinate their emotions, it is necessary for them to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d face various emotions. Of the various emotions that can be dealt with in literature educ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educational value of shame, and presented the spectrum of shame in modern poetry and the educational process for it.

Shame is an incomplete human emotion that constantly slides away from one's goal while pursuing a decent life, and an ethical emotion that deeply implicates oneself in the pain of others. Shame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value, which can be comprehended from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an emotion that allows one to understand and reflect on oneself to set goals for life. Second, it is a social emotion that makes one recognize oneself through the relationships with others. Third, it is an emotion that gets oneself involved in the tragedies that occur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materialize the three characteristics of shame, the works of Yun Dong-ju, Kim Soo-young, and Hwang Ji-woo were analyzed. I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hame as a self-reflection present in Yun Dong-ju's works, the soci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shame present in Kim Soo-young's work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hame that function as a sense of solidarity for the community present in Hwang Ji-woo's works. In addition, I suggested the following three steps as a process for the education of shame. These include "experience of shame through empathy and identification," "internalization of shame through recollection and imagination," and "practice of shame through awareness and interest."

Literature appreciation allows the subject to temporarily isolate him-

self/herself from external stimuli and focus on the inside. As literature education includes the process of appreciating literature, it is necessary to seek various educational attempts so that the learners can become mature citizens who understand and express their emotions.

**KEYWORDS** Literature Education, Poetry Education, Emotion, Shame, Education on Emotion, Emotional Experience